

삼학도 50년만에 다시 섬으로 복원되나



목포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낭만이 깃든 삼학도가 지난 1968년 매립된 지 50년 만에 다시 섬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1930년대 삼학도의 모습(왼쪽)과 현재의 모습.

옛 일흥조선~항운노조
호안수로130m 통수 추진
목포시, 타당성 용역 발주
사업비·관광 가치 등 조사

삼학도 통수 위치도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발생, 환경피해 등 해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통수 시 관광 측면에서의 가치와 관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와 시의회에서는 앞서 제기된 표면적인 문제점 보다는 관광 측면에서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섬 이미지'를 지닌 진정한 의미의 삼학도 복원과 적조 해소를 위해서는 통수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통수지점은 대삼학도 구

일흥조선 쪽 수로에서 구 항운노조 건물을 지나 내항으로 연결하는 안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두 지점간의 거리는 130m 정도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지난 2000년 시작돼 지금까지 총 1200억 원이 투입돼 57만4000평에 달하는 공원 조성하고 함께 수로 2.1km, 산책로 4.2km, 교량 9개소, 취수 관문 3개소, 주차장 1개소를 건설했다. 현재 공정률은 86%로,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과 대흥수산 보양만을 남겨놓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 석탄부두가 이전되고 대흥수산 보양이 마무리되면 200억 정도를 투자해 이곳에 해변광장과 음악분수광장, 교량 1개소를 설치, 최소한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2월초 최종 용역 결과 통수가 결정되면 지난 1968년 삼학도 매립공사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삼학도가 온전한 섬으로 거듭나게 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는 삼학도. 삼학선녀의 전설이 서린 곳이자 호남인들의 애국가로 불리는 '목포의 눈물'로 더 유명한 삼학도. 이곳이 매립돼 육지로 변한 지 50년 만에 다시 섬이 되는 역사적인 사업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는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온전한 삼학도 복원'을 위해 삼학도 호안수로 통수(通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통수 시 발생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반시설에 소요될 예산 사업비, 관광 가치와 효과 등을 분석해 통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통수 시 만조 수위보다 지반고가 낮은 대삼학도 도심지 경계구간의 산책로, 기존 건물, 도로 등이 침수될 우려가 높고, 호안수로 석축 상단부(잔디 식재 구간) 침식에 의한 수로 사면붕괴 위험이 최대 걸림돌이다.

또 산책로가 호안수로와 인접해 만조 시 수로 깊이가 4.4m까지 상승할 경우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통수 공사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축,

갯바위 해상 보행교 대대적 보수 나선다

목포시가 매년 관광객 3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상 보행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에 나선다.

목포시는 건설된 지 10년이 경과해 지난 9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바닥 부식·계류체인 파손·싱거 유실 등 중량 C등급 판정을 받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교 부문에서 하부 바닥과 교각부 노출 H빔 부식, 교대 석재파손 등이 발견됐고, 도교는 하부 H빔 부식과 도장 박리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잔교에서는 교량 연결부 고리 파손과 바닥 데크 들뜸 현상이 나타났고, 부잔

교 계류체인 부식이 진행되는가하면 싱거 2개소가 유실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해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4억8500만원(국비 2억, 도비 2억, 시비 8500만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정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시 건설과장은 "보행교를 이용하는 시민과 갯바위 관광객 해안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갯바위 보행교는 목교118m 도교40m 부잔교140m 등 총 298m에 폭 3.6~4.6m로 지난 2008년 건설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가 매년 관광객 30만명 이상이 찾는 갯바위 해상보행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사업비 4억8500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에 나선다. <목포시 제공>

"목포를 팔아라" 마케팅 전담 부서 신설

시, 브랜드 가치·경쟁력 높이기

민선 7기 김종식(사진) 시장체제가 출범하면서 '목포 팔기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초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변화는 미디어 마케팅 담당 신설과 문화재를 과(課) 단위로 격상한 점이다.

김 시장은 최근 마무리된 관내 23개 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케·문·도·맛(케이·문화유산(문화재)+도시재생+맛의 도시)'을 핵심 화두로 "목포를 팔겠다"고 역설했다.

목포를 팔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목포시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김 시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종편의 예능이나 먹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목포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방행정에서 '세일즈'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김 시장이 이번에 '마케팅' 개념을 지방행정에서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홍보·마케팅에서 갈수록 예능·먹방 프로그램과 함께 SNS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낭만 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를 알려 목포를 팔아먹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열린 어린이집' 17곳 선정 보육서비스 질 향상 위해

목포시가 '열린 어린이 집'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시책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28일 더욱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17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열린 어린이집은 시설 구조와 운영적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으로, 부모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현장실시 확인을 거쳐 29일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목포시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신규

10개소와 재지정 7개소 등 17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개방성, 부모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을 평가해 최소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가운데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정 부여(지자체형 5점, 우수형 10점), 보조교사 우선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정기 지도·점검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정기간은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매년 재선정 및 신규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목포영어도서관, 어린이 대상 할로윈데이 체험행사

목포영어도서관이 지난 27일 목포시와 인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로윈데이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할로윈데이는 10월 31일로 미국 전역에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에게 할로윈데이의 유래와 일상을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도서관은 할로윈분위기에 어울리도록 꾸미기 위해 1층 종합자료실에 페이스페인팅과 가면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층과 앞마당에서는 귀신의 집, 괴물

눈 붙이기, 거인 먹이주기, 호박블링, 삼목게임(Tic Tac Toe) 등 같은 서구권에서 즐겨하는 다양한 놀이를 운영했다.

오후 3시와 4시에는 도서관에서 만들고 꾸민 가면과 페이스페인팅을 활용하여 집에서 준비해온 할로윈 의상을 입고 도서관 앞마당을 행진하는 가상행렬을 진행했다.

목포영어도서관 관계자는 "서구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영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용자가 영어도서관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서 기자 kjs0533@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